

진지한 여가 비용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LPA) 및 영향요인 검증

김태환¹ · 황선환²

¹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 ²서울시립대학교 교수

Latent Profile Analysis of Serious Leisure Cost and Validation of Factors Affecting

Kim, Taehwan¹ · Hwang, Sunhwan²

^{1,2}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rious leisure cost on participants' satisfaction by examining the difference in intention of continuous participation among subgroup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dults who are seriously participating in leisure sports activ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set as the population, and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6.0 and AMOS 26.0 program. As the main analyzing method, latent profile analysis using the Mplus 7.0 program was performe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a latent profile analysis with the sub-factor of serious leisure cost as an index, it was most appropriate to classify the latent profiles into three categories. The three classified groups were named as low-cost group, medium-cost group, and high-cost group, respectively. As a result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predi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groups classified through the latent profile analysis, the durable benefits and strong identity among serious leisure distinct, and gender were derived as factors affecting. Finally, one-way ANOVA was performed to verify the difference in intention of continuous participation between the three groups classified. Low-cost group showed higher intention to continue than the other groups.

Key words : serious leisure, serious leisure benefits, serious leisure costs, latent profile analysis, intention to continue

주요어 : 진지한 여가, 진지한 여가 편익, 진지한 여가 비용, 잠재프로파일분석, 지속의도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7044416)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wang, Sunhwan
E-mail: shhwang@uos.ac.kr

Received: October, 31, 2022 Revised: December, 17, 2022 Accepted: December, 26, 202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현대 사회인들은 자신에게 최적화된 여가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여가 참여에 대하여 각자 다른 참여 목적, 인식, 동기 및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최적화된 여가 탐색의 결과는 곧 다양한 여가 활동 참여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여가 활동을 휴식이나 산책, TV시청과 같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여가를 선호하며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반면, 여가 참여를 통해 성취, 자아 정체성 확립, 자기 개발 등 보다 고차원적인 결과물을 경험하고자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여가활동에 임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참여 형태를 Stebbins(1982)는 ‘진지한 여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진지한 여가란 “여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 또는 경험을 습득하고 표현해냄으로서 참여자들이 활동에서 특별한 삶을 발견하기에 충분히 가치 있고 흥미 있는 활동으로, 아마추어(amateur), 취미활동가(hobbyist) 및 자원봉사자(volunteer)로 분류되어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활동”(Stebbins, 1992, p. 3)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진지한 여가 참여자들에게는 전문성(career), 인내(perseverance), 개인적 상당한 노력(significant personal effort), 보상(reward)과 오래 지속되는 편익(durable benefits), 독특한 기풍(unique ethos), 강한 정체성(strong identity)이라는 6가지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 Stebbins가 진지한 여가 이론을 제시한 이후 Stebbins를 비롯한 국내외 여러 연구자들이 진지한 여가와 관련된 연구를 실시해왔으며, 이를 통하여 진지한 여가

의 이론적 확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진지한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분야 중에서 ‘편익’과 ‘보상’은 참여자들의 지속적 참여 및 만족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되어 특히 많은 연구(예, 강희엽, 이철원, 김형훈, 2015; King, 2001; Major, 2001)가 이루어져 왔다. Stebbins(1992)는 앞서 언급한 보상(reward)과 오래 지속되는 편익(durable benefit)에 대하여 기대 유무와 상관없이 참여에서 발생하는 결과물로 설명하였다. 또한 진지한 여가의 참여에서는 일곱 가지의 개인적 편익(개인적 풍요, 자아실현, 자아 표현, 자아 이미지, 자기만족, 자아 재창조, 재정적 보상)과 세 가지의 사회적 편익(집단 성취, 집단 개발, 사회적 매력)이 발생하며, 이는 참여자의 성취감(fulfillment)과 직결된다(Stebbins, 2001). 성취감은 재미있거나 만족스러운 경험, 혹은 충족 경험을 의미하는 ‘만족(satisfaction)’보다 참여자의 긍정 경험에 한층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차원적인 결과물이다(Stebbins, 2004).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는 여가 활동에서 보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여가 활동에 매진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Stebbins, 2007).

그러나 진지한 여가가 참여자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진지한 여가 참여자가 자신의 여가 활동에 너무 몰두한 결과 가정 및 사회에서의 의무에 소홀하여 주변인과의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 여가 활동에 시간과 돈을 과투자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심지어 부상을 경험하는 경우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물이 발생할 수 있다. Stebbins(1992)는 진지한 여가 활동 종류에 따라 실망감(disappointments), 반감(dislikes), 긴장감(tension) 등의 비용이 수반되지만 앞서 언급한 보상들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Profit Hypothesis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Stebbins가 언급한 비용은 두가지 한계

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실망감(disappointments), 반감(dislikes), 긴장감(tension) 등의 비용은 모두 심리적 속성만을 고려한 결과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지한 여가 참여는 시간 및 경제적 비용(Baldwin & Norris, 1999), 신체적 비용(Bartram, 2001)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Rachel, 2010) 등의 다양한 속성을 지닌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양한 속성의 비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Profit Hypothesis에 따르면 진지한 여가의 비용은 편익에 의해 상쇄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편익과 비용의 실증적인 측정 및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밝히진 못하였다. Stebbins(2007, 2016)가 비용에 대한 연구와 보상에 대한 연구 사이의 격차를 지적하였으며, 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틀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 또한 비용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외에서 실시된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영역을 연구한 타 선행연구들 또한 유사하게 비용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나 실증적인 영향력 측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진지한 여가 비용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김태환, 황선환(2018)은 문헌 연구와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여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영역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구체적으로, 진지한 여가 비용을 “진지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소비하는 경제, 시간, 사회, 신체, 심리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의미하는 1차 비용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 시간, 사회, 신체, 심리적 측면의 부정적 결과를 의미하는 2차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김태환, 황선환, 2018, p. 90)으로 정의하고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비용의 5개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김태환, 황선환(2020)은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1차 비용과 2차 비용으로 정립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진지한 여가의 부정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진지한 여가 비용의 기본적인 특성 및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연구가 실시되었으나 아직 폭넓고 심층적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지한 여가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진지한 여가 비용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환, 황선환, 2017). 또한 진지한 여가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사회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홍철, 김태환, 황선환, 2018). 즉, 진지한 여가 비용은 진지한 여가와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이라는 사실은 밝혀졌으나, 이는 진지한 여가와 진지한 여가 비용의 단순한 관계 분석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진지한 여가 비용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진지한 여가 비용이 참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지한 여가의 편익과 보상은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즉, 진지한 여가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 의도가 높은 경우 진지한 여가 활동에서 높은 수준의 편익을 경험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진지한 여가의 편익과 상반되는 비용에 따라 지속적 참여의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면 진지한 여가 비용의 영향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진지한 여가 비용의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탐색하기 위하여 유형화 연구를 실시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진지한 여가 참여 종목이나 참여자의 개인적·사회적 특성에 따라 비용 발생 유형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진지한 여가 비용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비용은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를 위하여 소비하는 사회적 관계 비용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 가족관계 소홀 등과 같은

사회적 측면의 부정적 결과”(김태환, 황선환, 2018, p. 90)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러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단체 종목에 참여하는 경우와 홀로 개인 종목에 참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조건에 발생하는 진지한 여가 비용을 유형화 할 수 있다면 비용의 영향력을 세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하여 진지한 여가 비용에 대한 유형 분류를 실시함으로써 진지한 여가 비용 발생에 따른 집단을 도출하고,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지한 여가 및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을 검증하려 한다. 더불어 하위 집단 간 지속적 참여 의도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진지한 여가 비용이 참여자의 만족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진지한 여가 이룬 속 비용의 분야를 확장시키는 계기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진지한 여가 비용 발생 양상에

따른 하위집단은 몇 개로 구분되며, 집단간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진지한 여가 비용 발생 양상에 따른 하위집단 분류를 결정하는 진지한 여가의 6가지 특성(전문성, 인내, 개인적 상당한 노력, 보상과 오래 지속되는 편익, 독특한 기쁨, 강한 정체성)은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진지한 여가 비용 발생 양상에 따른 하위 집단간 지속적 참여 의도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 여가스포츠활동에 진지한 태도로 참여하고 있는 성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목적 표집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 종목인 골프, 대인 종목인 테니스, 단체 종목인 야구 참여자들을 비롯한 307명에게 네이버 오피스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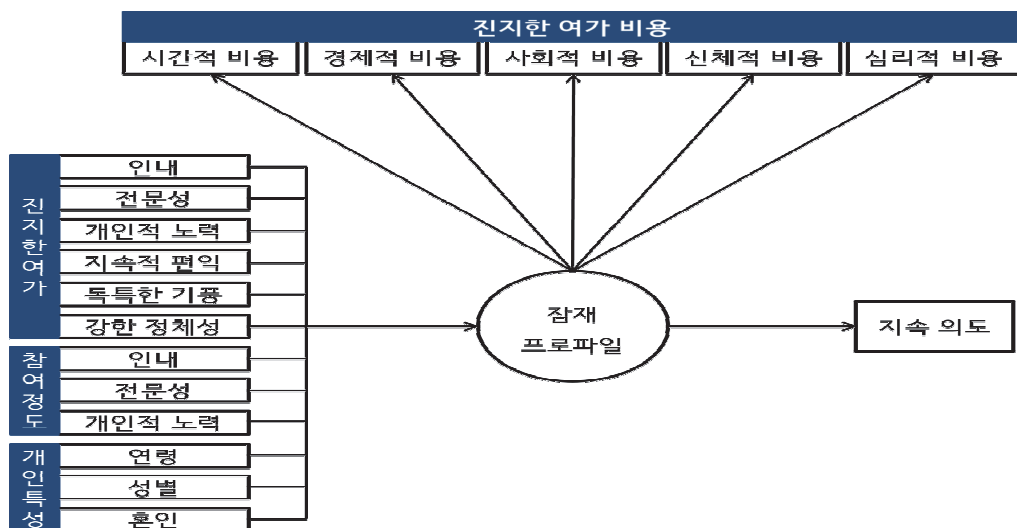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집된 설문지 중 자신의 여가활동에 진지한 태도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진지한 여가의 평균 점수가 3점 미만, 즉 진지한 여가의 수준 측정에서 전반적으로 ‘다소 그렇지 않다’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낸(진지한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 11개의 답변을 제외한 296부의 답변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항목	n	%
성별	남성	172	58.1
	여성	109	36.8
	무응답	15	5.1
	합계	296	100
가계 소득	100 만원 미만	21	7.1
	100-200 만원	15	5.1
	200-300 만원	55	18.6
	300-400 만원	64	21.6
	400-500 만원	33	11.1
	500 만원 이상	108	36.5
혼인	미혼	145	49
	기혼	151	51
참여 종목	골프	69	23.3
	야구	101	34.1
	테니스	69	23.3
	기타	57	19.2
	항목	M	SD
연령	40.74	10.703	

연구대상은 남성 172명(58.1%), 여성 109명(36.8%)으로 남성의 수가 다소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0.74세로 조사되었다. 가계소득은 500 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대상이 108명(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혼인 여부의 경우 미혼자가 145명(49%), 기혼자가 151명(51%)으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이 참여하고 있는 종목은 야구가 101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와 테니스는 모두 69명(23.3%)으로 같았다. 연구대상은 한달 평균 7.63회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한번 참여할 때 평균 4.06 시간을 참여하고, 평균 8.87년을 참여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진지한 여가 비용(2차 비용, 15문항), 진지한 여가(24문항), 지속적인 참여의도(6문항), 인구사회학적 변인(8문항) 총 5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 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여가학 전공 교수 2인, 박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과 함께 내용을 검토한 후,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적합 여부를 고려하였다. 더불어,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측정 변수들의 내적구조가 타당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으며,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1) 진지한 여가 비용(2차)

진지한 여가 비용은 김태환, 황선환(2020)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진지한 여가 비용 척도는 1차 비용과 2차 비용으로 분리하여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2차 비용 척도만을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5개 하위 요인(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비용) 각 3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진지한 여가

진지한 여가는 김미량(2015)이 개발한 척도(SLS II)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6개 하위요인(인내, 여가 전문성, 개인적 노력, 지속적 혜택, 여가 정체성, 독특한 기풍) 각 4문항, 총 2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지속 의도

지속 의도는 정용각(2008)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지속 의도와 관련된 6개 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지한 여가 비용, 진지한 여가, 지속의도의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측정

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 도구 타당도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df	χ^2/df	CFI	IFI	RMSEA
진지한여가	660.451	237	2.787	.905	.906	.078
진지한여가비용	222.962	80	2.787	.943	.944	.078
적합기준		≤3	≥.90	≥.90	≤.08	
Result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속 의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진지한 여가와 진지한 여가 비용 모두 양호한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어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후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Cronbach's α
진지한여가	인내	.821
	여가 전문성	.840
	개인적 노력	.896
	지속적 혜택	.825
	여가 정체성	.892
	독특한 기풍	.830
	전체	.938
진지한여가 비용	시간적 비용	.826
	경제적 비용	.916
	사회적 비용	.797
	신체적 비용	.756
	심리적 비용	.848
	전체	.907
지속의도	전체	.786

신뢰도 분석결과 진지한 여가 척도의 Cronbach's α 는 .821부터 .938까지 분포되었으며, 진지한 여가 비용 척도는 Cronbach's α .756부터 .916까지, 지속 의도는 .786으로 나타나 모두 기준치인 .6보다 높아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26.0 프로그램, AMOS26.0 프로그램 및 Mplus7.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를 활용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투입될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은 진지한 여가 비용 발생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Mplus7.0 프로그램을 활용한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가 이분형 변수일 때는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지만,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활용한다(Schmiege, Meek, Bryan & Petersen, 2012).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연속형 측정 변인들의 다변량 분포를 기반으로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 복수의 하위 계층으로 분류하게 되지만, 잠재 집단의 수를 미리 결정할 수 없으므로 집단의 수를 늘려가며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집단의 수를 결정한다(신혜숙, 2015).

구체적으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정보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Schwartz, 1978), SABIC(Sample-size Adjusted BIC)(Sclove, 1987)를 활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정보지수는 모두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다. 잠재프로파일의 분류 기준은 Entropy 값을 토대로 확인하였다. Entropy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약 0.8 이상이면 적절한 분류로 판단한다(Clark, 2010).

잠재프로파일의 모형 비교 검증은 조정된 차이 검증(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Ration Test: LMR LRT)(Lo, Mendell & Rubin, 2001)과 모수적 부스트랩 우도비 검증(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BLRT)(McLachlan & Peel, 2000) 값을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잠재프로파일이 k 개인 모형과 k-1개인 모형과의 차이를 검증, 결과값 중 p값이 유의하면 k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채택하고 p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채택하였다.

잠재프로파일 구분 후, 관련 변인인 진지한 여가의 영향을 검증하는 데에는 Asparouhov & Muthen(2014)이 제안한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잠재프로파일 구분을 위한 지표(indicator)만 투입된 기본모형 평가를, 2단계에서는 사후집단소속 확률을 토대로 각 개인이 소속될 잠재프로파일 추정, 3단계는 분류 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주는 독립·종속 변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행하였고, 공변인과 프로파일 간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프로파일 집단 간 지속의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heffe's test를 활용하였다.

III. 결과

1.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진지한 여가의 하위요인 중 인내의 평균은 4.90($SD=1.298$), 여가 전문성의 평균은 4.65($SD=1.235$), 개인적 노력의 평균은 5.07($SD=1.212$), 지속적 혜택의 평균은 5.41($SD=1.116$), 여가 정체성의 평균은 5.12($SD=1.291$), 독특한 기풍의 평균은 5.34($SD=1.088$), 진지한 여가 전체의 평균은 5.08($SD=.931$)로 나타났다. 진지한 여가 비용의 경우 시간적 비용의 평균은 3.46($SD=1.481$), 경제적 비용의

표 4. 기술통계분석 결과

요인	M	SD	Min	Max
인내	4.90	1.298	1.25	7
여가 전문성	4.65	1.235	1.25	7
개인적 노력	5.07	1.212	1.75	7
지속적 혜택	5.41	1.116	1.75	7
여가 정체성	5.12	1.291	1.25	7
독특한 기풍	5.34	1.088	2.0	7
전체	5.08	0.931	3.04	7
시간적 비용	3.46	1.481	1.0	7
경제적 비용	2.55	1.472	1.0	7
사회적 비용	2.68	1.443	1.0	7
신체적 비용	3.13	1.425	1.0	7
심리적 비용	2.95	1.525	1.0	7
전체	2.96	1.121	1.0	7
지속의도	5.77	0.998	2.33	7
빈도(횟수/월)	7.63	5.841	1	26
강도(시간/회)	4.06	11.689	1	24
기간(년)	8.87	7.363	1	33

평균은 2.55($SD=1.472$), 사회적 비용의 평균은 2.68($SD=1.443$), 신체적 비용의 평균은 3.13($SD=1.425$), 심리적 비용의 평균은 2.95($SD=1.525$), 진지한 여가 비용 전체의 평균은 2.96($SD=1.121$)으로 나타났다. 지속의도의 평균은 5.77($SD=0.99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도의 경우 참여빈도는 평균 7.63회($SD=5.841$), 참여강도는 평균 4.06시간($SD=11.689$), 기간은 평균 8.87년($SD=7.363$)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 투입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진지한 여가의 하위요인들 사이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진지한 여가 비용의 하위요인들 사이에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지속의도의 경우 진지한 여가의 하위요인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시간적 비용을 제외한 진지한 여가비용의 하위요인은 모두 지속 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모든 상관계수는 .8보다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상관관계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인내	1															
여가 전문성	.378***	1														
개인적 노력	.419***	.498***	1													
지속적 혜택	.429***	.465***	.537***	1												
여가 정체성	.478***	.522***	.529***	.778***	1											
독특한 기쁨	.411***	.434***	.501***	.658***	.719***	1										
시간적 비용	.084	.029	.085	.063	.102	.052	1									
경제적 비용	.000	-.005	.068	-.055	-.036	-.048	.371***	1								
사회적 비용	.132*	.053	.033	-.007	.114*	-.006	.566***	.451***	1							
신체적 비용	.114*	.087	.048	.009	.094	.006	.608***	.396***	.574***	1						
심리적 비용	.103	-.062	-.018	-.069	.039	-.003	.382***	.386***	.486***	.576***	1					
지속의도	.278***	.187***	.356***	.546***	.450***	.454***	-.047	-.256***	-.186**	-.201**	-.270***	1				
빈도	.112	.044	.248***	.199**	.204***	.171**	.079	-.019	.070	.084	.017	.269**	1			
강도	.005	.038	.047	-.087	-.017	-.073	.050	.075	.034	.024	.042	-.107	-.055	1		
기간	.030	.420***	.088	.028	.084	.026	-.086	-.111	-.035	-.014	-.090	-.125*	-.118*	.059	1	
연령	-.042	.101	-.030	-.178**	-.191**	-.129*	-.111	-.007	.010	-.112	-.071	-.163**	-.085	.128*	.527**	1

1: 인내, 2:여가 전문성, 3: 개인적 노력, 4: 지속적 혜택, 5: 여가 정체성, 6: 독특한 기쁨, 7: 시간적 비용, 8: 경제적 비용, 9: 사회적 비용, 10: 신체적 비용, 11: 심리적 비용, 12: 지속 의도 13: 빈도 14: 강도 15: 기간 16: 연령
* $p < .05$ ** $p < .01$ *** $p < .001$

2. 진지한 여가 비용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

진지한 여가 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 비용 발생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파일 수를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 모형비교 검증 및 엔트로피 값의 변화를 탐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정보지수에 해당하는 AIC, BIC 및 SABIC는 프로파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 가지 지수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이는 잠재프

로파일의 수가 늘어날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늘어날수록 정보지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스크리 도표(Scree Plot)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한다(김영서, 홍세희, 2021). 잠재프로파일의 수에 따른 정보지수의 변화를 시각화한 <그림 1>에 따르면 잠재파일의 수가 3개에서 4개로 증가하는 지점부터 정보지수의 감소폭이 감소하기 때문에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3개인 모형

표 6. 잠재프로파일 집단분류 결과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개	3개	4개	5개
정보지수	AIC	4947.754	4877.262	4853.191	4826.621
	BIC	5006.799	4958.450	4956.521	4952.094
	SABIC	4956.058	4888.681	4867.724	4844.269
모형비교 검증 (P-Value)	LMR	.000	.186	.279	.378
	BLRT	.000	.000	.000	.000
분류의 질	Entropy	.837	.824	.736	.746
	집단 1	61.8	49.3	25	23.3
분류율(%)	집단 2	38.2	41.9	31.1	24.7
	집단 3		8.8	6.1	36.1
	집단 4			37.8	7.8
	집단 5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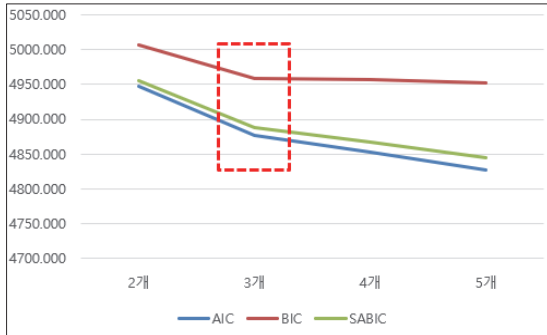


그림 1.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정보지수 변화

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모형검증에 해당하는 LMR과 BLRT는 p값이 유의하면 k-1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기각하고 k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채택하게 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LMR은 잠재프로파일이 3개일 때부터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프로파일이 2개인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LRT는 잠재프로파일이 2개부터 5개까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 모델을 채택할 수 없었다. 또한 분류의 질에 해당하는 엔트로피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집단 분류의 정확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잠재프로파일이 2개와 3개인 모델은 양호한 수치를 나타낸 반면, 4개인 모델부터는 엔트로피값이 기준치인 .8이하로 떨어져 적합하지 않았다.

정보지수, 모형비교 검증, 분류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잠재프로파일을 3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LMR과 BLRT를 고려하였을 때 잠재프로파일

표 7. 평균 사후확률표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1에 속할 확률	0.961	0.039	0.000
집단 2에 속할 확률	0.081	0.878	0.041
집단 3에 속할 확률	0.000	0.111	0.889

을 2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였으나 정보지수의 완만해지는 변화폭을 고려하였을 때는 3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였다. 또한 잠재프로파일을 3개로 분류하였을 때 2개로 분류했을 때보다 추가적인 정보량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과 해석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의 잠재프로파일을 가지는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 모형을 채택하고 사후계층 소속확률을 확인함으로써 분류의 질에 대해 검증하였으며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집단 1에 속할 확률은 96.1%, 집단 2에 속할 확률은 87.8%, 집단 3에 속할 확률은 88.9%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후계층 소속 확률이 .7 이상일 때 비교적 정확한 분류로 판단한다(Nagin, 2005). 따라서 소속 확률이 .889부터 .961로 나타난 본 연구의 계층 분류는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이 검증되었다.

3. 프로파일 집단별 특성 및 기술

결정된 진지한 여가 비용 프로파일의 다섯 가지 지표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다섯 가지 지표에 따라 프로파일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표 8. 지표에 따른 진지한 여가 비용 프로파일의 집단별 차이

	class1		class2		class3		전체		F
	M	SD	M	SD	M	SD	M	SD	
시간적 비용	2.48	1.110	4.29	1.092	5.06	1.095	3.46	1.481	120.005***
경제적 비용	1.91	1.012	2.82	1.401	4.88	1.268	2.55	1.472	71.223***
사회적 비용	1.72	.788	3.31	1.178	5.03	.981	2.68	1.443	169.082***
신체적비용	2.08	.763	3.94	.984	5.24	1.227	3.13	1.425	217.258***
심리적 비용	1.995	.946	3.56	1.159	5.50	1.300	2.959	1.525	151.186***
비율	49.3%		41.9%		8.8%		10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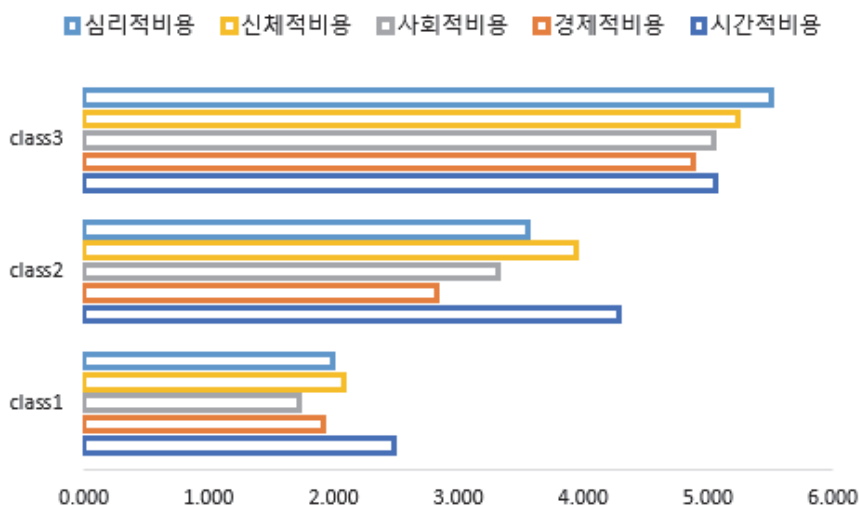


그림 2. 진지한 여가 비용 잠재프로파일 형태

($p < .001$), 프로파일의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집단 별 진지한 여가 비용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1번 집단의 경우 모든 지표가 전체평균 이하이며, 다른 두 집단보다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두 번째 집단의 경우 모든 지표가 전체 평균 값 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세 번째 집단보다는 모두 낮았다. 마지막 세 번째 집단의 경우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모든 지표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경향을 고려하여 첫 번째

집단은 저비용 집단, 두 번째 집단은 중간비용 집단, 세 번째 집단은 고비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4. 프로파일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분류된 세 집단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9>와 같다. 예측결과를 살펴보면 진지한 여가의 하위요인 중 지속

표 9. 진지한 여가 비용 발생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영향요인 검증

변인 영역	예측변인	기준집단: 고비용집단 비교집단: 저비용집단		기준집단: 고비용집단 비교집단: 중간비용집단		기준집단: 저비용집단 비교집단: 중간비용집단	
		β	SE	β	SE	β	SE
진지한 여가	인내	-.523*	.257	-.482	.258	.041	.120
	여가 전문성	-.221	.316	-.275	.317	-.054	.154
	개인적 노력	-.230	.296	-.186	.300	.044	.150
	지속적 혜택	1.400***	.395	1.261**	.394	-.139	.209
	여가 정체성	-1.197*	.494	-1.216*	.495	-.020	.200
참여 정도	독특한 기풍	-.185	.444	-.323	.446	-.138	.188
	빈도	.032	.047	.073	.047	.042	.025
	강도	.014	.169	.178	.166	.164*	.080
개인적 특성	기간	.028	.060	.029	.061	.001	.025
	연령	.014	.039	.023	.039	.009	.019
	성별(남성=1)	1.803**	.615	1.309*	.616	-.494	.312
	혼인(기혼=1)	.030	.693	.969	.702	.939**	.359

* $p < .05$ ** $p < .01$ *** $p < .001$

적 혜택이 높을수록 고비용집단(class 3)보다 저비용집단(class 1)이나 중간비용집단(class 2)에 속할 확률이 각각 1.4배, 1.2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 정체성이 낮을수록 중간비용집단(class 2)보다 고비용집단(class 3)에 속할 확률이 1.2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정도의 경우 세 가지 요인 중 강도가 높을수록 저비용집단(class 1)보다 중간비용집단(class 2)에 속할 확률이 0.164배 증가하였다.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고비용집단(class 3)보다 저비용집단(class 1)과 중간비용집단(class 2)에 속할 확률이 각각 1.803배, 1.309배 증가하였다. 또한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저비용집단(class 1)보다 중간비용집단(class 2)에 속할 확률이 0.939배 증가하였다.

5.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지속 의도 차이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분류된 세 집단의 지속 의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결과 저비용집단(class 1)의 지속의도는 평균 5.98(SD=0.857), 중간비용집단(class 2)의 지속의도는 평균 5.62(SD=1.062), 고비용집단(class 3)의 지속의도 평균은 5.29(SD=1.158)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저비용집단(class 1)은 중간비용집단(class 2)과 고비용집단(class 3)보다 지속의도가 높았으며, 중간비용집단(class 2)과 고비용집단(class 3) 간 지속의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표 10.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변인	집단	%	지속의도 평균 (표준편차)	F(p)	사후검증
프로	class1	49.3	5.98(0.857)	8.048***	class1) class2·class3
파일	class2	41.9	5.62(1.062)		
유형	class3	8.8	5.29(1.158)		

***p<.001

IV. 논의

이 연구는 진지한 여가 비용 발생 양상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지한 여가의 특성 및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진지한 여가의 2차 비용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을 지표로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적의 프로파일 수는 3개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class1(저비용 집단)은 모든 비용이 평균 3 이하로 낮게 나타났고, class2(중간비용 집단)는 모든 비용이 평균 3~5로 보통 수준이지만 경제적 비용이 다소 낮고 시간적 비용은 다소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class3(고비용 집단)은 모든 비용이 평균 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파일 집단 분류의 결과는 진지한 여가 비용 수준의 전반적인 정도만이 반영되어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세 개의 프로파일 집단의 비용 발생 양상 패턴에서 눈에 띄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구분된 집단들의 특징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류 결과는 연구 대상의 다양성을 확장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 연구는 골프, 야구, 테니스라는 3종목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진지한 여가 참여자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 중 진지한 여가 수준이 낮은 대상은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연구 대상의 여가 참여 및 비용 발생의 유형이 유사하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진지한 여가 수준 및 종목의 다양화를 통해 연구 대상의 특성을 폭넓게 반영한다면 집단 간 특징성이 보다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한편, 잠재프로파일 분류 결과가 다소 단편적

인 비용 발생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영향요인 검증에 위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진지한 여가의 하위요인 중 지속적 혜택이 높아질수록 고비용 집단보다 저비용, 혹은 중간비용 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진지한 여가의 편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속적 혜택을 높게 인식할수록 비용을 적게 인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편익과 비용의 관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Stebbins(1992)는 Profit Hypothesis를 제시하며 진지한 여가의 비용은 편익에 의해 상쇄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편익과 비용의 실증적인 측정 및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밝히진 못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편익의 직접적인 상쇄 효과를 증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편익이 높아질수록 비용을 낮게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지속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편익이 비용 감소의 선행변수이자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지한 여가 편익이 비용보다 큰 집단에서 지속의도가 더 크게 향상된다는 선행연구(조형선, 2022)의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함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편익이 비용을 상쇄시키고 참여를 지속하게 만든다는 Stebbins(1992)의 Profit Hypothesis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향후 진지한 여가 비용과 지속의도의 관계, 진지한 여가 편익의 조절효과 등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진지한 여가 편익의 직접적인 상쇄 효과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지한 여가의 하위요인 중 지속적 혜택과 더불어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여가정체성은 참여 중인 여가활동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미량, 2008). 이와 같은 여가 정체성이 높

은 참여자는 여가활동이 삶의 중심에 위치하며 높은 몰입 수준을 보인다. 다수의 선행연구(예, 박형준, 2014; 윤영선, 2010)에서 몰입과 여가 정체성의 정적(+) 관계가 검증되었으며, 몰입과 여가정체성은 참여 정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조금신, 이제홍, 2019). 높은 참여 정도, 즉 여가활동에 더 오래, 자주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 등 투자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부정적 결과물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가정체성이 낮아질수록 고비용 집단보다는 중간비용 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가정체성이 낮아진다면 여가활동에 투자하는 진지한 여가 1차 비용(시간, 경제적 비용 등)이 낮아질 것이며, 그로 인해 경험하는 2차 비용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로 해석된다.

개인적 특성에서는 성별과 혼인 여부가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성별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고비용 집단보다 저비용 혹은 중간비용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과 남성의 제약 및 시간, 경제적 비용 등 가용한 여가 자원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의 성역할 인식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가사와 양육을 여성의 주요 과업으로 인식하는 다소 모순적이고 보수적인 특징이 있다(문지선, 2017).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가사와 양육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용한 여가 자원이 많을 것이며, 여가활동과 의무 활동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물을 경험할 가능성 또한 적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혼 여성들의 여가 제약, 여가 자원의 부족에 대한 지적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김홍설, 이문진, 황선환, 2015; 신규리, 오세숙, 2009)

성별에 따른 차이는 미혼자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결과(통계

청, 2020)에 따르면 생활필수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더 길고, 취업노동시간과 여가 시간은 남성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나 가정의 제약이 다소 적은 미혼 자일지라도 성역할 태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성의 진지한 여가 비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시간의 성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진지한 여가 참여자들의 비용 발생 양상과 영향요인, 나아가 지속의도를 분석하였으며,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지한 여가 비용 발생 양상에서는 특별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연구 대상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추측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종목, 진지한 여가 수준 등의 특성을 보다 다양하게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진지한 여가 비용은 진지한 여가의 편익에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았던 비용과 편익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진지한 여가의 비용과 편익을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진지한 여가의 학문적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지한 여가 비용 발생 양상에는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비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성차 발생의 명확한 영향요인을 탐색하려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골프, 야구, 테니스라는 3종목 참여자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종목의 특성이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와 동시에 개인종목, 팀종목, 대인종목을 모두 분석에 활용했기 때문에 각 종목 유형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목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특정 종목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당 종목의 고유한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희엽, 이철원, 김형훈(2015). 축구 참여 여대생의 진지한 여가, 신체적 자기개념 및 자아성취감의 관계. *여가학연구*, 13(4), 39-56.
- 김미량(2015). 진지한여가 척도의 재정립. *한국체육학회지*, 54(2), 313-322.
- 김영서, 홍세희(2021).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여가학연구*, 19(1), 23-49.
- 김태환, 황선환(2017).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진지한 여가 비용.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1(3), 19-29.
- 김태환, 황선환(2018). 진지한 여가 비용의 개념화.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2(3), 83-96.
- 김태환, 황선환(2020). 진지한 여가 비용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9(6), 403-419.
- 김홍설, 이문진, 황선환(2015). 직장여성의 결혼에 따른 여가계약과 여가계약협상. *한국콘텐츠학회*, 15(1), 242-251.
- 김홍설, 김태환, 황선환(2018).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진지한 여가 비용의 하위요인 차이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4, 281-290.
- 문지선(2017). 부부의 성역할 태도로 본 기혼여성의

-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51(2), 191-232.
- 박형준(2014). 동계스포츠 참여자의 몰입경험이 여가정체성 및 여가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2), 63-73.
- 신규리, 오세숙(2009).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제약 유형화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4), 157-169.
- 신혜숙(2015).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공동체의식, 학교행복에 관한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 요인 탐색. *교육평가연구*, 28, 53-76.
- 윤영선(2010). 패러글라이딩 참여자의 여가몰입이 여가정체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2), 195-204.
- 정용각(2008). 레저스포츠 참가자의 기본적 심리욕구만족, 참여동기 및 지속의도와와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4(2), 1591-1604.
- 조금신, 이재홍(2019). 배드민턴 동호인의 참여정도에 따른 경기력과 운동몰입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7(2), 487-497.
- 조형선(2022). *라켓스포츠 참여자의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따른 진지한 여가편익과 비용*.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통계청(202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 716-723.
- Asparouhov, T., & Muthe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Baldwin, C. K., & Norris, P. A. (1999). Exploring the dimensions of serious leisure: "love me--love my dog!".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1(1), 1-17.
- Bartram, S. A. (2001). Serious leisure careers among whitewater kayakers: A feminist perspective. *World Leisure Journal*, 43(2), 4-11.
-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
- King, F. L. (2001). Social dynamics of quilting. *World Leisure Journal*, 43(2), 26-29.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 767-778.
- Major, W. F. (2001). The benefits and costs of serious running. *World Leisure Journal*, 43(2), 12-25.
- McLachlan, G. J.,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Wiley.
-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achel, K. (2010). "'We are not strippers'": How Belly Dancers Manage a (Soft) Stigmatized Serious leisure Activity. *Symbolic Interaction*, 33(3), 435-455.
- Schmiege, S. J., Meek, P., Bryan, A. D., & Petersen, H. (2012).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A flexible statistical approach for identifying and classifying heterogeneity. *Nursing Research*, 61(3), 204-212.
- Schwartz, G. (1978). Estimating dimensions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 Sclove,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 Son, J. S., Kerstetter, D. L., & Mowen, A. J. (2008). Do age and gender matter in the constraints negotiation of physically active leisure? *Journal of Leisure*

- Research*, 40(2). 267–289.
- Stebbins, R. A. (1982). Serious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 *Pacific sociological review*, 25(2), 251–272.
- Stebbins, R. A. (1992). *Amateur,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ontreal, Quebec: McGill Queen's University Press.
- Stebbins, R. A. (2001). New Directions in the Theory and Research of Serious Leisure, *Mellen Studies in Sociology*, vol.28. Lewiston, NY: Edwin Mellen.
- Stebbins, R. A. (2016). Costs, constraints, and perseverance: A rejoinder to Lamont, Kennelly, and Moyl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8(1), 1–4.